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12년도 표어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마5:13-16, 벰전2:11-12)

행동지침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인 : 박노철 발행: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수요 강단 - 마태복음

찍어 버려야 할 것 (마 5:27-30)

What We Have to Cut Off (Matt. 5:27-30)

한 시대의 도덕성이 어떠한가를 보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폭력, 즉 살인과 성적인 타락입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 시대의 성적인 타락의 이유를 “Situational Ethics, 즉 상황윤리”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상황윤리란 모든 일을 상황에 맞게 판단하면 된다는, 다시 말해서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상대적 진리를 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If there are two standards to view morality in a particular era, it is to look at violence, namely, ‘murder’, and sexual vices. Pastor James Boyce explains that the view of this era’s sexual vice is “Situational Ethics”. This situational ethics means that everything has to be inferred from the situation, that is to say, a relative truth that is not an absolute truth.

However, all the things which the Bible speaks of is absolute truth. All of the Law that was given by God, especially, the Ten Commandments must not be understood by the situation but the absolute truth that we must observe, wherever we are.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들, 특별히 십계명은 상황에 맞춰 이해해야 할 것들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1. The broad interpretation of the Law

1. 율법의 확대 해석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27절). 예수님 시대에는 남자들이 여자들을 버려도 된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여인과 살려고 하면서 간음한 자가 될까 봐 그들은 모세가 한 말을 인용해서 이혼증서를 써주며 아내를 버리고 자기는 합법적으로 다른 여인을 얻어 생활을 했습니다.

“You have heard that it was said, ‘Do not commit adultery.’” (v.27)

At the time of Jesus Christ, it was aimlessly thought that men can completely disregard women. That’s why when a man didn’t like his wife and wanted to live with another woman, not to commit adultery they wrote a certificate of divorce according to Moses’ word and easily disregarded the wife. And they lawfully got married to another woman and lived their life.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심은 이혼증서를 써주라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라는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혼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습니다. 수치스럽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고,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모세에 의하면 이혼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발견될 때입니다(신 24:1). 수치되는 일의 히브리어 단어는 ‘에르와트’인데, 이것은 ‘발가벗은, 부끄러운’이란 의미로 성적으로 부정할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음행의 죄 외에는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없는 것입니다.

However, God’s command, “Do not commit adultery” is not to write and give a certificate of divorce to his wife but to love his wife, to treasure her, and to keep the family precious.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혼증서를 언급하신 것은 이혼의 근거를 주신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이혼하지 말고 같이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혼증서를 써주는 이유도 그 증거가 있어야 이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t that time, Jewish people thought that it was very easy to divorce. Moreover, they never felt shame, indecent, and guilty. According to Moses, there was one reason to divorce, which to find something indecent about the woman (Deut. 24:1). Something indecent, the word ‘erwat’ in Hebrew, means sexual infidelity that indicates ‘naked’ or ‘shameful’. Therefore, there is no reason to divorce except for an immoral sin.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음욕과 방탕한 생활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율법을 자기들 취향에 맞게 해석하여 큰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However, the fact that God mentioned the certificate of divorce to Moses was not to give an easy right to divorce, but to live together without divorce and simply to be a last means resource. The reason why a man gives a certificate of divorce is for the divorced woman to be able to marry with another man. Nevertheless, since the Pharisees and Jewish people interpreted the Law in order to legalize their own sensual pleasure and dissipated life and to accommodate their own preferences, they have committed high crimes.

2.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정당한 사유 없이 이혼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기에 결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습니다. ‘음행한 이유 없이’ (27절)란 ‘부정할 일을 저지른 확실한 사실이 없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2. God’s will and providence concerning marriage

Because the fact that we divorce without any fair reason is that we commit adultery, which should not be God’s will. ‘No reason to commit sensual pleasure’ (v. 27) refers to ‘no certain fact to commit an infidelity’. Physical adultery and mindful lust are the same crime. Those who look at a woman lustfully have already committed adultery with her in their heart.

육체의 간음과 마음의 간음은 똑같은 범죄입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들은 모두 이미 마음에 간음한 자인 것입니다.

If we fall into this temptation, and if we have a mind that we should gouge and throw away your eye, or cut your hand off and throw it away, to overcome the temptation, then we can keep our husband, our wife, and our family precious. (Matt. 5:29-30)

우리에게 유혹이 왔을 때 우리는 눈을 빼어버리고 손을 찍어버리는 심정으로 유혹을 이기므로 남편과 아내와 가정을 귀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마 5:29-30).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My beloved Christians!

가정이 평안해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우리의 자녀가 건강하고, 나라가 건강해집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결코 넘어짐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If a family is peaceful, the Church will be peaceful. If a family is healthy, our children will be healthy, and a nation will become healthy. Anyone who is in Jesus Christ is never condemned. Even though we are guilty, we must repent our sins thoroughly. Never fall down but have a victory with God’s word. And now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us will make a home like the kingdom and live our lif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2012년 상반기 장학금 수여

오리엔테이션: 2월 5일(주일) 오후 4시, 본당
장학금 수여식: 2월 5일(주일) - 찬양예배시간에

서울교회 장학회(회장:이영기 장로)는 2012년 상반기 장학생을 선발하고 다음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장학금 수여식을 갖는다. 장학금 수여식에 앞서 오후 4시에 있을 오리엔테이션에 대상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할 때에 장학금을 받을 본인명의의 통장 계좌번호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장학금 수여식에 단정한 복장 차림으로 참여한다. 선발된 학생들은 총 48명으로 본인의 믿음이 신실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교회봉사에 모범적인 학생들이다.

2012년도 상반기 장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신학생>-4명 허승일 박다형 최인애 이신우
- <대학생>-21명 김현지 진영재 Prativa Bandahki 박하나 김재은 김수경 유원모 임아름 지효환 이한나 김휘 권보화 김혜진 이윤재 3 최서원 박수영 이신혜 은다솔 박유란 손형호 권소현
- <디아스포라>-9명 이현서 이영화 김영애 이수현 양진혁 양리인 박춘희 홍정원 백오셀
- <브리스길라>-3명 이지수 왕수용 이유빈
- <교역자 선교사 자녀>-7명 한세희 정휘준 황신혜 서윤영 김에나 이혜나 김하은
- <송암장학생>-3명 최미리 노성준 문병훈
- <기타> 이성화

한국장로교총회 설립 100주년, 목사·장로 기도회

1월31일(화) 오후 7시 - 서울교회 본당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사 43:18-19)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는 1월31일(화) 오후 7시 우리교회 본당에서 한국장로교총회설립100주년 목사·장로 기도회를 개최한다. 이번 기도회는 한국장로교총회설립100주년을 맞아 한 교단 다체제 연합을 이루고, 한국교회와 사회에 희망을 주기 위함이며 장로교 지도자들인 목사, 장로 1200여 명이 모일 예정이다. 이날 설교는 우리 교회 이종운 원로목사가 담당 한다.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금요기도회 특별 강사 초청

2월 3일: 이병욱 박사(대암클리닉원장, 의학박사)

금요기도회에 특별 강사들이 초청된다.

2월 3일은 대암 클리닉 원장인 이병욱 박사가, 2월 24일에는 한동대 김영길 총장이 특강을 담당한다. 두 분의 간략한 프로필은 다음과 같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2월 3일: 이병욱 교수: 現, 대암클리닉원장, 의학박사

KOSTA 주강사
KBS, MBC, SBS, CBS, CTS 방송 건강 자문의
前, 포천 중문의대 외과교수/고신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저서: - 의사전도왕(규장)/- 천국건강법(규장)외13권

2월 24일: 김영길 총장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
1998- 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 (ABI) 발행/
인명사전 '20세기 500명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 (Five Hundred Leaders of Influence)로 선정
1999- 세계복음화중앙협의회 한국 기독교선교대상 수상

2012년 교육부서 겨울 성경학교·수련회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유아부	2.26(주)~28(화)	서울교회	나는 빛! 나는 소금!	최인에 전도사
유치부	2.26(주)~28(화)	서울교회	착한 행동을 하나님께!	박다형 전도사
유년부	2.26(주)~28(화)	서울교회	나의 삶이 주님께 영광!	김안성 목사
초등부	2.26(주)~28(화)	서울교회	하나님의 빛!	이신우 전도사
중등부	2.20(월)~21(화)	아가페타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박노철 목사/노정호 목사
사랑부	2.12(주일)	서울교회	소금과 빛!	한상은 목사
대학부	2.2(목)~4(토)	아가페타운	선택과 집중&변화와 유지-올파라이징하라!	박노철 목사/허승일 전도사
청년1부	2.29(수)~3.1(목)	아가페타운	하나님의 비전으로 부흥하는 청년	박노철 목사/박진아 목사
청년2부	3.1(목)~3.3(토)	아가페타운	세상의 소금과 빛!	박노철 목사/오세광 목사
에바다	2.25(토)	서울교회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임규현 목사
신혼가정부	2.11(토)	서울교회	소금과 빛	한상은 목사
영어예배부	2.24(금)~25(토)	아가페타운	ppp-Praise, pray, play	박노철 목사/스티븐 마티늘리치 목사
레인보우영어교실	2.3(금)~4(토)	통일교육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자!	박광일 목사

**엘리베이터
이렇게 사용합시다!**

성도 여러분!
주일 1·2·3부 예배 전후,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합시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35]

(문 31) 산파 십브라와 부이는 바로에게 거짓말을 했으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집안을 흥롭게 하셨다(출1:20-22) 하셨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답) :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들이 번성하며 바로는 산파들에게 히브리인들이 남자를 낳으면 죽이라는 유아살해 명령을 내렸습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들을 살리면서 히브리 여인들은 강건하여 산파가 이르기 전에 출산을 했다고(출1:19) 말을 한 것입니다.

사실 산파들은 히브리인들 낳은 아기들을 죽이고 싶지 않아 산모가 출산 후 늦게 도착한 것이니 거짓말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늦은 도착은 고의적인 계획이었음이 폭로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24시간 그들을 감시했다면 그들은 모두 애굽경찰에 체포되었을 것입니다. 구금, 재판, 사형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감행한 것은 자기백성의 시를 말리려고 유아살해를 조직적으로 시행하는 바로의 명령과 그 재앙을 피하려고 부분적 진리(half-truth)를 바로에게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큰 악을 피하기 위해 덜 나쁜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진리를 보류했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무죄한 아기들의 목숨을 구원키 위해 개인적 위험과 희생을 무릅쓰고 이 일을 강행한 것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2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의 출산을 도운 산파가 두 사람뿐이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애굽 정부가 고용한 두 산파에게 명하므로 그들 산하의 모든 산파들이 그들 명령대로 늦게 도착하여 유아살해를 막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상황윤리학(Situation ethics)에서 가르치는 바와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말도 허용된다는 것은 성경 진리와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부분적 진리만을 말한 것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출1:21) 하나님 뜻을 좇은 까닭에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다음주 계속)

제8기 설교사역도고 교육 개강

교육은 2월 5일(주일)~ 2월 26일(주일), 4주간, 매 주일 오후 3:30~4:20이며 609호에서 정수길 목사를 강사로, 강의내용은 도고사역의 의의, 도고의 특권과 의무, 도고의 승리의 모본,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도고, 설교사역 도고의 중요성과 도고의 실제 등이다. 성도들의 많은 참석 바란다.

다락방 리더 교육 개강

2012년 2월 1일(수), 수요일 1, 2부 예배 후 101호에서 열린다.

2012 특별기고 ②

자유, 진리, 통일을 생각하다

- 평양에 열릴 희망의 아침 -



다음은 지난 주에 이어 새로운 국면을 맞은 북한을 바라보는 크리스천의 올바른 시각과 안보관에 대한 이종운 원로 목사님의 기고문이다. (편집자 주)

지나해는 유독 세계의 많은 독재자들이 퇴진 또는 사망한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북한의 포악한 지도자 김정일이 마침내 사망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수많은 생명을 살상한 김정일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1974년 김일성의 후계자로 공식화된 후 37년 동안 권좌에 앉아 북한을 강압 통치한 김정일은 핵무기로 세상을 협박하고, 300만명이 넘는 우리의 동족을 아사(餓死)시킨 가공할 인물입니다. 지금 세계의 이목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온통 북한을 향하고 있습니다.

많은 역사철학자들은 한 문명이 몰락할 때 대체로 다음의 네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가속화가 생길 때 그 사회가 무너집니다. 지금 북한은 사회적 경제적 균형을 심하게 잃어가고 있습니다.

둘째, 사회보장제도의 약화가 붕괴의 원인이 됩니다. 북한의 배급제 사회 구조가 이미 무너졌고 씩이 보이던 장마당마저 김정일 사후 단속, 폐지 되어 이제 북한 백성들은 기댈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셋째, 지적 수준의 급강하로 비판 정신 마비 또는 실종은 그 사회를 무너지게 합니다.

넷째, 정신적 죽음은 지적 저하보다 더 심각한 몰락을 초래합니다.

북한의 현재 상황으로 보아 북한 정권은 몰락의 길로 접어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을 비롯한 미국, 심지어 대한민국 정부조차 북한의 정권승계가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랄 뿐 아니라 체제 안정을 돕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기조 유지를 위해서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미국이, 그리고 북한을 적으로 삼는 다던 대한민국이 햇볕정책이라는 미명 하에 북한의 비위 맞추기에 많은 물질과 시간을 낭비한 것과 그들에게 핵무기 제조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재원을 제공한 역사적 과오는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철권 통치 하에서 신음하며 형언할 수 없는 억압을 받으면서도 북한 민주화를 꿈꾸며 자유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의 3대 세습을 확고히 뒷받침 해주고 북한 지배체제의 안정을 도모해 주겠다는 발상이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절망의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악귀가 재앙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귀신을 잘 대접해야 재앙을 면할 수 있다는 뜻으로 무당이 굿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마의 집단인 북한 정권의 심기를 건드려 이로울 것이 없으니 귀신 달래는 무당처럼 우리 정부는 북한을 달래자고 합니다. 성경은 악을 대적하라 했지 타협이나 야합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이 같은 귀신 달래기 정책은 작전상 후퇴가 아니라 자유, 정의 그리고 평등의 보편적 가치를 내세운 대한민국 국가 이념과도 크게 반(反)하는 발상인 것입니

다.

패트릭 헨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칩니다. 자유는 싸구려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값비싼 대가를 요구합니다. 목숨보다 귀한 자유는 하나님의 형상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인권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신앙의 자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주창합니다.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나 이데올로기로부터의 자유, 폭정으로부터의 자유는 진리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인간의 근본적 문제인 영적인 문제, 즉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 문제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렀던 평양에서 신앙 자유 회복운동이 일어난다면 북한이 살고 우리 민족에게 희망의 아침이 열릴 것입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렀던 평양에서 신앙 자유 회복운동이 일어난다면 북한이 살고 우리 민족에게 희망의 아침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김정일 폭정의 종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폭압 정권의 몰락을 학수고대한 것은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인권을 회복시켜 사람답게 살게 해줘야겠다는 신앙심의 표현인 것입니다. 인권회복이나 국권회복운동은 곧 신권회복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선진국으로 자리매김을 한 대한민국은 잃어버린 북녘땅에 복음의 씨를 뿌려 참자유의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백성은 책임 있는 천국시민이 될 터이니 자유를 얻은 백성답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진정한 자유의 나라를 대한민국과 우방들이 함께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

만민에게 전도 - 70인 전도대 영성수련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윤숙지 권사 (70인 전도대 축호/지비팀)

아가페타운에서의 70인 전도대 영성수련회는 전도대원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영적 연합을 이루는 귀한 영성훈련이었습니다. 출발 전 담임목사님의 격려와 기도는 전도대원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아가페타운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박이선 총괄팀장님의 진행으로 찬양과 함께 서로의 간증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착 후 노문환 장로님의 기도도 1부 순서가 진행되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말라"는 배경에 전도사님의 설교는 아직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요나와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 나의 밑알을 드리게 하는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많은 도전과 위로와 은혜와 격려를 받게 하는 참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2부 순서에서 진행된 영성훈련은 우리 모두에게 뜨

거운 회개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즉, 아가페 사랑을 느끼면서 전도대원들의 하나 된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또한 전도대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복된 영성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위와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육이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 담대히 복음 들고 나가는 70인 전도대 복음의 군사들! 우리 서울교회의 보석이요, 하나님 나라의 보석이라는 것을 수련회를 통하여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받은 구원에 감사하여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받은 상급을 바라보며 생명 있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을 쏟고 마음을 쏟으며 복음 전하는 일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라는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티끌과 같은 나를 충성된 자로 여기시고 복음의 도구로 삼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겨울수련회 초대이글 - 레인보우 영어교실



손태기 집사(레인보우영어교실 부장)

레인보우영어교실은 미래 북한복음화의 주인공들이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영어교실입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울교회에 잘 정착한 레인보우영어교실도 처음으로 겨울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2월 3일(금)부터 4일(토)까지 통일교육원에서 진행될 레인보우영어교실 겨울수련회에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설날 연휴인 24일(화) 오전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성경통독사경회로 모였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와 마가복음을 읽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VISION 2020 후원자 명단

강승웅(서영애) 강요섭(강찬영) 강진환(양정실) 고석규 구은총 권장환 권희만 김광욱(서영희) 김관집 김명숙 김민선 김민주 김복녀 김수남(송경옥) 김영주 김영준 김유경 김장섭(최춘숙) 김정희 10 김중자 김진숙 김태삼 김혜경 김혜중 김홍찬 김희옥 김희진 나점균 남현주 노병희(방덕자) 노희군 노희수 루디아전도회 리브가전도회 민혜경 박노철(김은경) 박순근(배은경) 박우주 방호철 배재송(임분도) 백승갑(박길재) 백정숙 백훈(김명심) 사라전도회 서현정 성선규(김명심) 손성실 손태현 송재현(선순례) 신삼철 아브라함선교회 양득춘(최혜인) 연구홍 오지철 우선자 우종암 원명희 윤갑숙 윤석원(현승희) 윤은식 윤정원(이성우) 이갑연 이강진(이신재) 이건희 이계홍 이관규 이관모 이기욱(이기택) 이남성 이복규(한명순) 이순형 이예은 이완형(박연순) 이용식 이우리 이우용 이응선(박승분) 이현수 이희규 이희민(이경실) 임선철(이영주) 임송자 장명순 장효정 전배호 전정숙 정기자 정영택 정정하 조순엽 조희 차영도(정미연) 최광혁 최미아 최인수(노인숙) 최학인 최향봉 최형열(김찬진) 허극수 홍해란 황성욱 황재연 (다음 주 계속)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자 명단

박노철(김은경) 유문진(김안성) 오유식 김원중(이갑연) 리브가전도회 강진환(양정실) 양춘경 전용식 차영도(정미연) 최미아 원명희 임만석(임만웅) 황선욱 김희옥 송인권(윤숙지) 민혜정 박용성(백운선) 최형열(김찬진) 김홍찬 윤형준 이예은 조순엽 고석규 배재송(임분도) 최성욱 이우리 이강진(이신재) 길창배 성선규(김명심) 김관규(윤혜련) 이복규(한명순) 이현수 조희 최향봉 새가족부 김성주(한주희) 박은진 홍성모(노은아) 박미경 (다음 주 계속)

농어촌100교회 후원자 명단

이성우 이희민(이경실) 이지은 백훈(김명심) 박경주(차혜연) 문성주 오유식 윤동수 임선철(이영주) 가브리엘전양대 김희진(신주현) 오명걸 김동수 이우식 민혜정 이상욱(장성자) 김장섭(최춘숙) 원명희 김홍찬 남현주 조영아 김정희10 이원일(장기숙) 황선욱1 노병호(홍지나) 강석조 류충기 (다음 주 계속)

기록물 제출 공고

교회는 지난해 작성된 교회 각 부서들의 각종 기록물들을 제출받습니다. 당회 산하기관과 각 위원회, 교구, 남녀선교회, 찬양대, 교회학교 등 모든 부서의 서거나 기록 담당자는 지난 한 해 동안 기록한 각종 기록물(각종 일지 및 회의록, 출석부, 보고서, 주보, 인쇄물, 주요 사진 등)을 1월 말까지 순례자실(704호)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민철 집사, 최형철 집사, 허숙 권사)

아울러 2010년 이전 과거 기록물도 보관중인 것이 있으면 반드시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컴퓨터 파일인 경우엔 서울교회 홈페이지내에 "기록물 보관실"로 들어오셔서 파일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제목에는 부서명과 기록물의 이름, 담당자명을 써주시면 됩니다. (예: 초등부 회의록 홍길동) 제출해주시는 자료는 교회내 역사자료실에서 정리해 영구 보존할 예정입니다.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예루살렘 찬양대에서 솔로리스트로 봉사하는 소프라노 이실비아 성도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과 대학원(성악전공)을 졸업, 전국 난파음악콩쿨과 전국 독일가곡콩쿨 1위 등 수차례의 콩쿨에서 입상하였다. 이들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현철 곡) 등 세 곡을 시온찬양대 피아니스트 박승기 성도의 반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린다.

주일찬양예배 오르가니스트 임명 김정희 선생

그 동안 공석이던 주일찬양예배(베들레헴 찬양대) 오르가니스트로 김정희 선생을 임명키로 하였다. 김정희 선생은 홍신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템플 음악대학원에서 수학하고 미국 웨스트민스터 콰이어 음악대학원을 졸업하였다. (M.M. 오르간 연주전공) 승동교회 및 미국 필라델피아 크레스트빌레 교회,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웨스트민스터 한인성가단, 필라델피아 한인성가단 등에서 반주자로 봉사하였다.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31일(화) 한국장로교총연합회주최 장로교 100주년준비 및 일교단다체제를 위한 목사, 장로기도회에서 설교한다. 2월1일(수) 한국군선교연합회 정기이사회에 참가한다. 2월4일(토) 사랑의 쌀 운동 조찬기도회에서 설교한다.
- 특녀: 6교구 서동욱 집사 진현미 집사
- 이사: 12교구 오길택 집사 박정선 권사 오유록 성도 이주현 성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90 LG2차 208동 103호 5교구 강민정 집사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삼삼래미안 106동 1804호 7교구 김정애 권사 서울시 마포구 하중동 101번지, 한강법성 자이아파트 101동 304호
- 주간식당봉사: 제2권사회(1.29) 빌립선교회(2.5)
- 금주의 식사: 최정환 집사 윤금자 집사 가정 (자녀결혼 감사하며)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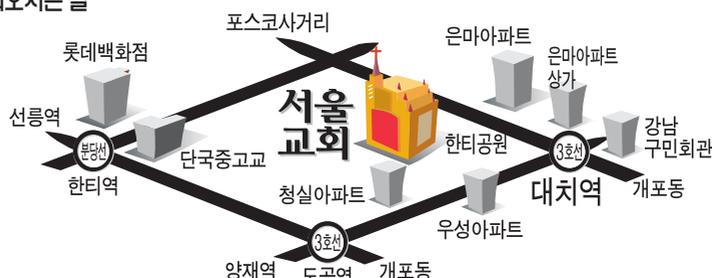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서울교회 장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기도 속에 성장하여 교회와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2. 한국장로교총회설립 100주년 목사장로 기도회를 통해 교회가 하나 되고 세상으로 향한 빛을 더욱 힘 있게 비추도록
3. 이번 금요집회에 초청되는 이병욱 의학박사의 간증을 통해 은교회가 치유와 도전과 결단의 시간을 갖을 수 있도록
4. 중등부와 대학부, 그리고 레인보우 겨울수련회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